

Summary

기사는 페이스북이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주제로 한 연구를 위해 경제학자 Raj Chetty와 그의 팀에게 방대한 양의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소식을 전한다.

Raj Chetty는 데이터에 기반해 사회를 분석하는 경제학자로, 과거 국세청 데이터를 통해 미국인의 고향과 미래 부의 관계를 예측하는 등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자본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다.

북미에서만 월 2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갖는 페이스북은 이 수많은 사용자들의 나이, 취미, 고향, 학교, 가족 관계, 친구 분포 등의 데이터를 Chetty에게 제공하여 위 요소들로 구성된 사회 연결망이 미국 내 경제적 불평등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사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행동이 2016 대선 관련 논란에 대한 이미지 쇄신책 중 하나라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의 CEO 저커버그는 불공정한 경쟁의 현실, 경제적 이동성의 증대 및 기본소득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개 발언을 이어가는 중이다.

한편, 수억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연구에 사용한다는 소식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 페이스북은 개인 신원 특정이 가능한 세부 정보는 제거된 상태로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Opinions

위 기사를 읽으며 생긴 세가지 의문점에 대해 의견을 적어 보고자 한다.

1. 현대 사회의 계층 수직 이동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위 질문에 답변을 내리기 위해서는 계층 수직 이동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양극화되지 않은 계층의 존재를 형식적으로나마 인정하였듯, 현대 사회는 단순히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두 계급으로 나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두 계급 간 상승, 하강 운동만으로 구성된 근대적 계층 수직 이동과 달리 현대 사회의 계층 수직 이동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띄게됨을 시사한다.

현대 사회의 다수 구성원은 중간 계층에 위치해 있다. 이 경우 계층 수직 이동의 개념이 매우 모호해진다. 부모는 월 500만원의 임금을 받는 블루칼라 노동자이나 자식이 월 300만원을 버는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되었다면, 이는 세대간 계층 수직 이동의 사례가 될 수 있는가? 생산수단을 갖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해 연 5000만원의 수익을 얻는 자영업자가 정신적 노동력을 제공하고 1억 이상의 연봉을 보장받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보다 상위 계급이라 볼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이에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 자본의 유무, 노동 양태 등으로 구분되는 계급이 더 이상 계층 이동 여부를 결정짓는 단일 요소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산의 규모(혹은 경제적 수입)는 어떤가? 새로운 직장에 입사 후 월급이 100만원 더 올랐다면, 이는 계층 상승 이동의 사례인가? 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해 더 작은 규모의 기업에 입사한 직장인의 월급이 줄어들었다면, 이는 계층 하강 이동의 사례인가? 이 역시 답하기 쉽지 않다. 어느 정도의 부가 추가로 보장되어야 '계층' 단위의 상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계층 수직 이동 개념의 모호화는 중간 계층의 성장에 기인한다. 다만 현대사회의 중간 계층은 단순히 양적 증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분업을 통해 기능(혹은 역할)의 다원화를 이뤄 그 복잡성 역시 강화한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증가하는 새로운 기능에의 수요가 계급으로 범주화 가능한 범

위 이상의 직업 분포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기능주의적 관점의 역할(직업) 중요도 차등화가 어려운, 신마르크스주의가 주장하는 다섯 계급의 상하 관계가 뒤섞여버린 현대 사회에서 계층 수직 이동은 어떤 변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본인의 답은 중간층의 일원화이다.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두 계급 사이, 중간층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회(지위)적, 경제적 변화는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 사이에 존재하는 애매한 변화이다. 이를 피하고 논란의 여지 없는 명확한 계층 수직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극화된 두 계급과 중간 계급 사이에서의 계층 이동만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 성원 대부분이 중간층에 위치한다 가정할 때 빈곤층에서 중간층 사이, 중간층에서 부유층 사이에서의 이동만을 계층 이동으로 인식하자는 것이다. 다만 각 계층의 기준은 주관적 기준 및 국가별 상황 및 지표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 혹은 경제/사회 연구 기관들은 중위 소득 기준 퍼센티지, 소득 10분위제, 기초생활수급 기준, 직업군 3분화 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사회 성원을 3가지 계층으로 나누고 있다.

2. 사회 연결망이 계층 상승 이동의 장애물이 아닌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는가?

개인의 사회 연결망은 대부분의 경우 한정되어 있다. 특정 지역으로부터 특정 계급, 특정 종교에 이르기까지 개인은 집단(혹은 '범위')에 속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개인이 처한 상황이 속할 집단을 정해주는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집단 선택에 개인의 선택이 개입되더라도 그 결과는 동류 집단으로의 합류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회 연결망은 개인의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한다. 개인은 다양한 사회 연결망을 지니고 있는데, 각 연결망들은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개신교인이 대다수인, 중공업이 크게 발달한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한 가정의,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뛰어난, 성별 남성의, 어린 아이를 가정해보자. 이 아이는 그림에 재능이 있다. 그러나 집이 가난하기에 그림 수업을 듣기는 힘들다. 아이는 마초적 남성 소설 내에서 자라오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비남성적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마초적 남성 문화 내에서 아이는 그림에의 재능을 점점 드러내지 않는다. 아이는 커가며 빈곤한 가정과 지역 산업 특성으로 중공업 종사 노동자가 되리라 기대 받는다. 그런데 특별한 기회로 개신교의 문화 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그림 수업을 듣게 되고, 재능을 피울 기회를 갖게 된다. 아이는 실제로 재능을 보여 몇몇 이들에게 작가로서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는 종류의 평가를 듣는다. 그러나 더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자금 및 잉여 시간의 부족은 가족 부양의 부담을 오롯이 지게 된 아이에게 사치로 다가오고, 아이는 결국 중공업 종사 노동자의 길을 걷는다. 이 예시에서 각 사회 연결망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중공업 지역, 남성 집단, 빈곤한 가정이라는 세가지 사회 연결망은 아이의 재능, 더 나아가 계층 상승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기능한다. 중공업 발달이라는 지역 특성은 해당 업종 노동자가 되기 위한 기술 교육 인프라 등이 잘 갖춰져 있다는 뜻으로, 지역 커뮤니티 내 다수가 관련 업종에 종사하도록 만든다. 이는 관련 업종 종사를 개인이 희망할 경우 긍정적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나, 다른 직업을 갖기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줄이는 장애물로서의 역할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 내 업종, 직업 편향성과 빈곤한 가정이라는 사회 연결이 만날 경우 상황은 보다 심각해진다. 운이 좋게 다른 직업에서 필요한 재능을 기를 기회를 갖는다고 해도 부양해야 할 가족의 존재는 재능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돈을 앗아가 버린다. 이 경우 선택지는 가장 보편적이고 빠른 취업 방법인 지역 내 유명 업종에 종사하는 것 외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남성 집단의 경우 마초성에 대한 강박 혹은 숭배로 그에 반대되는 특성-섬세함, 예민함 등-에 대한 혐오 및 조롱을 일삼는다. 이는 집단 내 일종의 규범으로 작용하고, 이 규범은 해당 특성에 부합하는 재능 개발을 저해한다.

반면, 개신교의 경우 아이의 재능 개발에 긍정적으로 기능한다. 빈곤한 가정 속에서, 남성 집단 속에서 개발하지 못하고 억눌려왔던 재능 발전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재능이 해당 업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물을 산출해내는 능력으로 발전할 경우 이는 계층 상승 이동의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교육 환경 및 지원에도

빈곤한 가정과 중공업 지역 등의 요인의 강력한 반대 기능은 재능 발전을 지속치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계층 상승 이동의 장애물로 기능한다.

위 예시를 통해, 우리는 각각의 사회 연결망의 역할이 다를 수 있다. 어느 사회 연결망은 사다리로서, 어느 사회 연결망은 장애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다만 앞에서 밝혔듯 개인의 사회 연결망은 대부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수동적으로 구성되며, 이는 다수의 사회 연결망이 현상 유지- 즉 계층 상승 이동을 저지하는 장애물로서 기능하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3. 계층 상승 이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1, 2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인은 계층 상승 이동을 빈곤층에서 중간층, 중간층에서 부유층으로 이동하는 것이라 보았고, 이러한 계층 상승 이동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기사 본문에서 언급된 사회 연결망 역시 대부분의 경우 계층 상승 이동의 사다리가 아닌 장애물로 기능한다.

중간층에서 부유층으로의 이동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불필요하나 빈곤층에서 중간층으로의 이동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빈곤층에서 중간층으로의 계층 상승 이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복지 정책의 강화이다. 공공주택의 증대, 기본소득 제도의 정착 등으로 대표되는 복지 정책들 말이다. 빈곤층에서 중간층으로의 계층 상승 이동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은 계층 상승 이동을 위한 투자에 따른 시간에서 돈, 돈에서 생존으로 이어지는 안정성의 압도적 부재이다. 이는 중간층에서 종종 보이는 불안정성(대학원 진학 혹은 유학 여부 결정이 대표적 예시이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협인 것이다. 앞선 복지 정책들은 빈곤층의 계층 상승 이동을 위한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지반, 토대를 형성해주는 것이다. 이때 사다리는 개인의 재능 개발 등을 도울 수 있는 교육 인프라 등의 사회 연결망이다.

공공주택 증대, 기본소득 제도 정착 등의 복지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지역에 양질의 교육 인프라가 골고루 구축된다면, 안정적 토대와 사다리를 통해 빈곤층의 계층 상승 이동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